

12호, 2019년 5월

서울숲 지킴이들의 훈훈한 이야기

# 서울숲컨서번시

이 달의 이슈

나비정원 개장

식목일, 서울숲의 하루

벤치입양 프로젝트



서울숲 다시보기

점심시간 톨립 이벤트

퇴근 후 숲으로\_가드닝 워크샵

서울숲 신규정원\_설렘정원

# 나비정원이 개장합니다!



2018년 5월 나비정원

2019년 5월 1일, 서울숲공원 '나비정원'이 새단장을 마치고 문을 엽니다. 예전 정수장의 건물을 활용해 만든 나비정원은 나비의 알과 애벌레, 번데기가 나비로 우화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번데기 전시대까지 나비의 한살이를 볼 수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산호랑나비, 산제비나비, 흰나비, 암끝검은표범나비 등 도심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6여 종의 나비 1,000여 마리를 볼 수 있어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나비의 먹이가 되는 유채, 케일, 란타나, 황벽나무 등 (40여 종 5,000여 본)의 식물을 서울숲 육묘장에서 직접 생산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2019년 개장을 앞둔 나비정원 내부 모습

서울숲 나비정원은 5월~10월 월요일 휴관) 10시부터 17시까지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나비 이외의 다양한 동식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서울숲 홈페이지(<http://seoulforest.or.kr>) 및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http://yeyak.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공간



예전 정수장의 급속여과지 건물을 활용해 만든 온실로, 평소에는 보기 어려운 100여종의 열대식물과 곤충, 파충류, 양서류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해 사시사철 인기가 많은 공간입니다.



서울숲 곤충식물원



# 당신의 추억을 새겨드려요

— 서울숲 벤치입양 프로젝트

서울숲에 있는 대부분의 벤치들은 2005년 개장 이후 15년이라는 시간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같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침과 묵묵히 함께 해왔습니다. 서울숲공원이 시민의 힘으로 자라왔듯, 시민들의 침을 도운 벤치도 그들과 함께 자랄 수 있다면 어떨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울숲 벤치입양’ 이 탄생하게 되었죠. 벤치 입양 프로젝트는 서울숲 공원 내의 벤치에 시민들의 이야기를 남기고, 해당 벤치를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을 모으는 활동입니다. 기부자 뿐 아니라 그 벤치에 앉아 쉬는 사람들도 누군가의 추억을 느끼고 기억할 수 있어요.

산책만 하던 공원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긴 곳으로 변해갑니다



부모님을 기억하는 추모벤치



방탄소년단 팬들이 입양한 RM(랩몬스터) 벤치

## Q. 명판에 들어가는 내용은 자유인가요?

개인의 추억 혹은 명언 등 기부자가 원하는 자유메시지를 삽입 가능합니다(20자이내, 선정적 문구 사용은 불가). 기부자명은 기부자의 이름 혹은 기념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 Q. 벤치입양 기간이 있나요?

네, 입양기간은 약정일로부터 5년입니다.

## Q.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Q. 입양한 벤치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서울숲공원 내 벤치가 필요한 3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설치되는 벤치가 다르며, 입양비용도 다릅니다.

- 사색의 길 : 메타세콰이어길을 따라 산책을 하고, 벤치에 앉아 독서를 즐기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 은행나무숲길 : 빼곡히 들어찬 은행나무가 이색적인 은행나무숲은 서울숲의 가을을 대표하는 공간입니다.
- 수변길 : 아름다운 호수를 바라볼 수 있는 수변길은 2018년 새롭게 탄생한 피크닉 명소입니다.

'서울그린트러스트' 홈페이지  
(<https://www.greentrust.or.kr/>)  
를 통해 벤치입양 문의



벤치 수량과 입양 위치 및  
기부금액 확정



벤치 명판에 들어갈 문구 협의



벤치 입양 완료 !

# 식목일, 서울숲의 하루는 ?



12 : 00 pm 해바라기씨앗 나눔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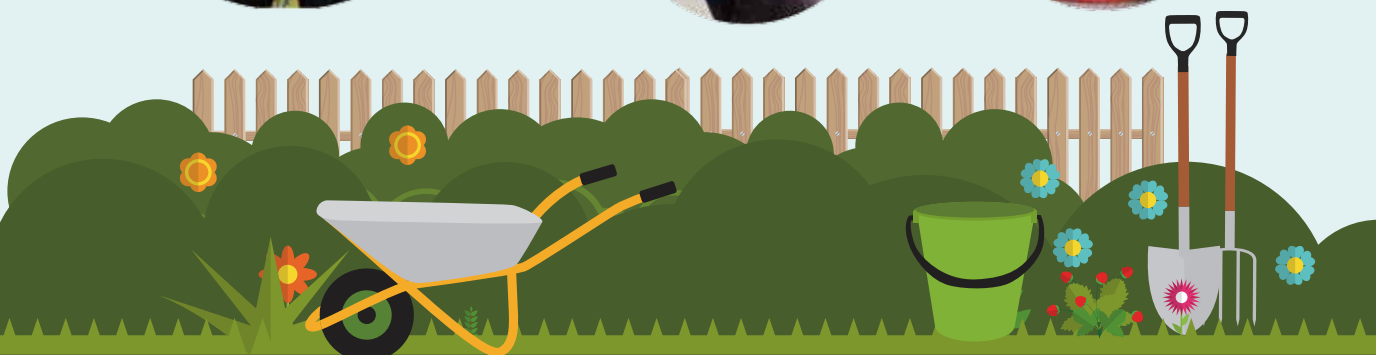
하루 5분의 투자로 초록을 느낄 수 있는 식목일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 시작 전부터 벌써 줄서 계시는 분들이 !



토분(흙으로 만든 화분)에 흙을 담고,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크기의 구멍을 내준 뒤 씨앗을 넣고 덮어주면 완성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행사 시작 1시간 만에 씨앗 150개가 매진되어서 예상치 못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2 : 00 pm 나무심기 기업자원봉사



제일기획

본격 나무식재 전 준비운동



습지생태원 가는 길 식재모습



서울기업연합



서울숲 소원의 폭포 인근 화단 식재모습

4월은 서울숲 일대에 나무를 심는 식목월(月)이었습니다. 총 670명이 (10개 기업, 1개 서울기업연합) 5,150주의 나무를 서울숲에 식재하였습니다. 서울숲을 함께 가꿔준 자원 봉사자분들 덕분에 서울숲은 한뼘 더 자랐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숲의 나무심기는 계속됩니다.





점심시간 튤립판매와 산책길 투어



## 꽃으로 사랑을 고백하세요

서울숲공원에서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튤립 개화기간에 맞춰 점심시간 반짝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만개한 튤립길 사이에서 꽃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약 10분간의 투어와 함께, 산책길 한 켠에는 서울숲에서 나고 자란 튤립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대가 준비되었습니다. 튤립의 꽃말은 ‘사랑 고백(빨간색)’입니다. 공원에서 산책중이던 한 부부는 “마침 오늘이 결혼기념일인데, 지금이 고백할 타이밍”이라는 농담과 함께 튤립을 구매하였습니다. 이벤트가 진행되었던 일주일동안 매일 같이 찾아주신 남성분, 이들에 걸쳐 제자들에게 꽃을 선물한 한양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님, 한국이 너무 좋아 한국사람이 되고싶다면 인도네시아의 Ratna&Risa 자매 등 ‘튤립’이라는 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서울숲과 소통하였습니다. 서울숲공원의 튤립정원은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내년 봄에도 계속됩니다.

## 서울숲 신규정원

### 너 이름이 뭐니?

2019년 5월 18일, 서울숲 원형마당이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 합니다. 이에 따라 ‘행복이 담긴 열매의 숲’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이 직접 정원의 이름을 제안하는 네이밍 공모전이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총 596명) #사랑 #결혼 #행복 #휴식 #열매 #포토존 #화이트&골드를 키워드로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최종 5개 후보(약속의 정원, 설렘원, 우썃우썃, 아름원, 서로정원) 중 공원 내 시민투표와 내부 의견을 합산한 결과 서울숲 신규정원이 ‘설렘정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8일에 만나요!

#### 설렘정원 (이\*나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설레게 하는, 그래서 자꾸 찾고싶어지는, 그 곳에서 함께하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서울숲의 설레이는 정원 "설렘원"을 제안합니다.



공원 내 시민투표 참여 모습

# 퇴근 후 숲으로 가드닝 워크숍



글·사진 | 서울숲기자단 강현진 김주선

지난 25일 오후 7시, 비가 오는 서울숲에 퇴근한 직장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능숙하게 책상 위에 있는 식물과 흙을 담았습니다. 바로 '퇴근 후 숲으로' 1기 수강생들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매주 화, 목 19시에 서울숲 커뮤니티센터에서 가드닝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7번의 수업을 들어서인지 선생님의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수강생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고, 순식간에 각자의 개성이 넘치는 다육이 화분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퇴근 후 숲으로 1기 마지막 수업으로 뒤풀이 겸 가든파티가 있는 날입니다. 수업을 마친 후 각자 준비해온 다양한 음식과 다과로 테이블은 금세 가득 차 멋진 가든파티가 준비되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화목한 분위기에서 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가진 사람들이 가드닝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8번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한 프로그램 참여자는 "직장생활을



2019년 1기 수강생들과 작품사진

하는 동안 한정된 사람들만 만났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더욱 빨리 친해질 수 있었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한, "퇴근 후 서울숲까지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수업이 너무 재미있고 얻어 가는 것이 많아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모두 참여했다.", "서울숲에 꽃이 피려는 즈음에 시작해서 꽃이 만개할 때 끝나니 더욱 감회가 새롭다." 등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퇴근 후 숲으로' 2기 수업은 5월, 서울숲 커뮤니티센터에서 계속됩니다.



기획마케팅팀  
프로그램 스태프 박민지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독일에서 마스터 플로리스트 과정을 졸업한 뒤 원예에도 관심이 생겨 독일의 대학교에서 원예학을 배웠습니다. 현재는 마스터 플로리스트로 활동 중이며 서울숲에서 가드닝워크숍 프로그램과 전시 기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제가 기획한 공기정화 식물전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단순히 가드닝체험 프로그램이 아닌 식물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 어떻게 하면 식물을 죽이지 않고 잘 키울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진행해요. 그래서 식물 키우는 즐거움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죠. 매 수업마다 기후대에 따른 여러 식물들에 대해 배우고 그 식물들을 직접 심어보는 시간을 가져요. 실습 전 식물에 대한 설명을 통해 어떻게 식물을 키워야 하는지 알려줘요.

##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따로 준비해야 할 건 없어요. '퇴근 후 서울숲'은 취미반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갖지 않고 다가가 주셨으면 해요. 우리 프로그램의 목적은 원예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갖자 보다는 '식물을 죽이지 말자!' 이니까요.



[프로그램]

**가드닝 워크샵 (입문반)**

일시 매주 화요일, 목요일  
19:00 ~ 21:00

대상 직장인

장소 커뮤니티센터

내용 직장인을 대상으로 미세 먼지, 공기정화식물과 플랜테리어, 데스크테리어 등의 콘셉트를 접목한 가드닝교실

참가비 5,000원

신청 서울숲컨서번시 홈페이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프로그램]

**마녀의 초대장 정원을 부탁해!**

일시 4~6월, 매월 3주 토요일  
11:00 ~ 13:00

대상 가족 20명 (8세 이상)

장소 커뮤니티센터

내용 요정들의 놀이터를 만들어주세요 (5/18 마녀의 숲 속 요정 정원 만들기)

참가비 1인 1만원

신청 서울숲컨서번시 홈페이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프로그램]

**꿀벌대소동**

일시 4~6월, 3,4주 토요일  
10:30 ~ 11:30

대상 누구나

장소 꿀벌정원

내용 꿀벌정원에서 자연물을 활용한 나만의 미니꿀벌, 꿀벌 음수대 만들기 프로그램

참가비 무료

신청 현장참여



[공기정화 식물전시]

미세먼지로 힘든 일상을 경험해 보셨나요? 공기정화식물을 통해 쾌적한 일상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 일 시 | 5.14(화) ~ 5.29(목) 10:00~ 14:00
- 장 소 | 커뮤니티센터 1층 전시실
- 문 의 | 02-460-2994

[공기정화 식물SHOW]

공기정화식물을 소개하고 사람들이 식물을 가까이, 즐겁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 일 시 | 4.20(토)~5.31(금) 10:00~17:00 (월요일 휴관)
- 장 소 | 곤충식물원 2층
- 무료관람

